

결과구문의 통사의미특성과 사건구조

김 경 학
(수원대학교)

Kim, Kyoung-Hark (2005). Resultatives and event structures. *Language Research* 41(3), 517-541.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perties of the resultative constructions and presents their event structures. At first, the primary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the resultative constructions are discussed based on Wechsler (2001)'s event-argument homomorphism model. It is pointed out that semantic restrictions on the resultative predicate are deeply related to lexical semantic properties of main verbs and syntactic form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Next,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2)'s event structure model is introduced and then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re argued. Simple and complex event structures and their problems are discussed. Then a modified new event structure model is presented according to its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with its advantages argued.

Key words: resultatives, telicity, homomorphism, coextensive, event structures, simple event, complex event

1. 서론

일반적으로 결과구문(resultatives)이란 타동사가 목적어 논항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영향을 받은 목적어 논항이 상태변화를 일으켜 어떤 결과상태에 이른 구문을 의미한다. 한편 타동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자동사도 결과구문형태로 쓰일 수 있다.

- (1) a. She wiped the table *clean*.
- b. Terry slept *herself sober*.
- c. The dog barked *the neighbors awake*.

(1a)는 타동사 wipe가 목적어 테이블을 닦아서 그 결과 영향을 받은 테이블이 깨끗해지는 원형적인 타동사형 상태변화의 결과구문이다. 이때 결과구문을 다른 구문과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적 특성은 결과의 상태가 완결성(telicity)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wipe란 동사 자체는 완결성이 없는 행위동사이지만 (1a)

처럼 결과구문으로 쓰이면 동작이 완료되어 테이블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된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동사 *sleep*, *bark*는 목적어와 같이 쓸 수 없는 자동사인 데 (1b-c)처럼 타동사형 결과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즉 둘 다 원래부터 자동사인 비능격(*unergative*)동사인 데도 불구하고 (1b)는 가짜 목적어(*fake object*)인 재귀대명사 *herself*를, (1c)는 비하위범주화된(*unsubcategorized*) 목적어 *the neighbors*를 동반하여 상태변화의 타동사형 결과구문으로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타동사에서 전성된 비대격(*unaccusative*) 자동사에 의한 결과구문과 이동양태(*manner of motion*) 자동사의 결과구문이 있다.

- (2) a. *The kettle boiled dry./*The kettle boiled itself dry.*
 b. *Robin ran out of the room./*Robin ran sore./Robin ran her feet sore.*
 c. *The cat jumped on the bus./The cat jumped free of the cage./The cat jumped itself free of the cage.*

(2a)는 원형적인 타동사형 상태변화 결과구문에서 전성된 자동사형 결과구문이다. 따라서 가짜 재귀대명사 *itself*를 동반한 타동사형 결과구문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2b-c)의 이동양태자동사 *run*, *jump* 등은 처소의 전치사구 *out of the room*을 동반하여 장소이동의 자동사 결과구문으로 쓰인다. 그러나 상태술어 형용사 *sore*를 동반하여 상태변화의 자동사 결과구문으로는 쓰이지 못한다. 단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 *her feet*를 동반하여 상태변화의 타동사형 결과구문에는 쓰일 수 있다. 그러나 (2c)처럼 *free*와 같은 특수한 형용사 술어를 동반할 경우 자동사형 결과구문과 가짜 재귀대명사를 동반한 타동사형 결과구문에 다 쓰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이와 같은 결과구문의 다양하고 복잡한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Wechsler (2001)를 중심으로 본동사와 결과술어의 의미제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2)를 중심으로 개개의 결과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어떻게 사건구조로 나타내어 구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 일관성 있게 종합하여 새로운 사건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결과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과 의미제약

Wechsler (2001)는 결과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으로 첫째 결과구문에 쓰이는 동사에 따라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의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3) a. *She wiped the table clean/dry/*dirty/*wet.*

- b. He hammered the metal *flat/smooth/into the ground* /**beautiful/*safe/*tubular*.
- c. The puddle froze *solid/*slippery/*dangerous*.

(3a)처럼 테이블을 닦아서 테이블이 깨끗해지거나, 마르게 되는 경우는 결과구문으로 쓰인다. 그러나 테이블을 닦다보니 결과적으로 테이블이 더러워지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도 물기에 젖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구문 형태로는 쓰이지 않는다. (3b)처럼 금속을 망치로 쳐서 평평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땅속에 집어넣는 것은 결과구문으로 쓰이지만, 아름답게 하거나, 안전하게 하거나, 판으로 만드는 것은 결과구문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 (3c)처럼 물웅덩이가 얼어서 단단해지는 것은 자동사형 결과구문으로 쓰이지만, 미끄러워지거나, 위험해지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는 가능해도 결과구문 형태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처럼 실제 상황하고는 다른 결과술어에 대한 결과구문만의 제약이 있다.

둘째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로 형용사구와 전치사구의 쓰임새가 다르다.

- (4) a. The rabbits had apparently been battered {**dead/to death*}.
- b. He and a confederate shot the miller {*dead/to death*}.

(4a)처럼 토끼가 두들겨 맞아 생사를 헤매다 죽는(*to death*) 경우는 가능해도, 바로 죽는(*dead*) 경우는 불가능하다. 반면 (4b)처럼 제분업자가 총에 맞아 생사를 헤매다 죽는 경우도, 바로 죽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처럼 결과구문에 쓰인 동사의 의미에 따라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로 형용사구와 전치사구의 쓰임새가 달라진다.

셋째 걸로만 보면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의 의미상의 주어로 심층 목적어(*deep object*)이어야 한다는 직접 목적어 제약(DOR: Direct Object Restriction)이 적용되는 것 같다.

- (5) a.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transitive)
- b. The water froze *solid*. (unaccusative)
- c. **The dog barked hoarse*. (**unergative*)
- d. The dog barked itself *hoarse*. (fake reflexive)

(5a)에서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 *flat*의 의미상의 주어는 직접목적어 *metal*이다. (5b)에서 *solid*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 *water*이지만 비대격화(*unaccusative*)된 경우이므로 심층목적어에 해당된다. (5c)에서 *hoarse*의 가능한 주어는 주어 *dog* 밖에 없는데 원래 자동사인 비능격(*unergatives*)동사이므로 심층 목적어가 될 수 없으므로 비문법적이다. 따라서 (5d)처럼 가짜 목적어 재귀대명사 *itself*를 내세워 표현하게 된다.

Wechsler (2001)는 이와 같이 겹으로 들어 난 결과구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결과구문을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의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통사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6) a. John hammered the metal [PRO flat].
 b. The dog barked [itself hoarse].
- (7) a. John persuaded Mary [PRO to sing].
 b. John expected [Mary to sing].

원래 타동사인 hammer의 경우 (6a)처럼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 flat의 의미상의 주어는 직접목적어 metal이 통제해 주는 경우이다. 즉 (7a)의 persuade와 비슷한 일종의 통제 결과구문(control resultative)으로 본다. 반면 원래 자동사인 bark의 경우 (6b)처럼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 hoarse의 의미상의 주어는 가짜 목적어 itself이다. 즉 (7b)의 expect와 비슷한 예외적 격표시(ECM; Exceptional Case-Marking) 결과구문으로 본다. 즉 타동사에 의한 통제 결과구문은 (6a)에서 보듯, 본 동사 hammer의 행위사건 [John hammered the metal]의 참여자인 주어 John이 망치로 치는 행위를 해서 또 다른 참여자인 목적어 금속이 영향을 받아 피영향자로서 평평해진다는 결과상태 [PRO flat]가 성립한다. 즉 동사의 행위와 목적어의 상태변화가 서로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동사에 의한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은 (6b)에서 보듯, 본 동사 bark가 나타내는 행위사건 [The dog barked]의 참여자인 주어 개가 짖는 행위를 해서, 통사적으로는 그 행위의 참여자가 아닌 가짜 제귀대명사를 목적어로 내세워 목이 쉬었다는 결과상태 [itself hoarse]가 성립한다. 즉 동사의 행위와 가짜 목적어의 상태변화가 서로 어휘의 의미적 관계에서라기보다는 문맥적, 화용적 관계에서 통사적으로 맺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근거로 결과구문의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와 결과상태와의 관계에서 동사와 결과술어인 형용사에 대한 의미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Wechsler (2001)는 타동사에 의한 통제결과구문의 경우 단순히 결과상태가 완결성을 보인다는 의미제약이 아니라, 행위의 참여자가 결과상태의 참여자가 되므로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과 똑 같은 시간으로 동시에 상태변화가 일어나므로 서로 시간적으로 동연하는 동형성(homomorphic)이 있다고 본다.

먼저 첫 번째 경우로 행위동사가 한 순간의(punctual)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 결과술어도 양극단을 나타내는 비정도 형용사(non-gradable adjectives)가 쓰여 완결성을 나타낸다.)

1) 형용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정도 형용사(gradable adjectives)와 비정도 형용사(non-gradable adjectives)로 구분할 수 있다.

- (8) a. Harry shot Sam dead.
- b. *Harry bored the students dead.

(8a)의 shoot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동사이다. 따라서 그에 시간적으로 의존하는 결과술어도 dead처럼 양극단을 나타내는 비정도 형용사가 쓰여 완결성을 나타낸다. (8b)의 bore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durative) 행위동사이므로 양극단을 나타내는 비정도 형용사 dead와는 같이 쓰일 수 없다. 즉 비정도 형용사 dead와 결과구문에 같이 쓰일 수 있는 행위동사로는 shoot, cut, kill 등과 같은 순간 행위동사이다.2)

다음 두 번째 경우로 행위동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행위일 경우 결과술어도 정도를 나타내는 유한척도(closed-scale)의 정도 형용사가 쓰여 완결성을 나타낸다.

- (9) a. He hammered the metal flat/smooth/*beautiful/*safe.
- b. He wiped it clean/dry/smooth/*damp/*dirty/*stained/*wet.

(9)의 동사 hammer나 wipe는 단 한번 일어나는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행위를 나타낸다. 그에 따라 (9a)의 결과술어에 쓰이는 형용사로 flat, smooth처럼 어느 정도 지속되어 척도상의 최대 끝점에 도달하는 유한척도 정도형용사가 쓰여 완결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끝점이 없는

- (i) a. very/quite/extremely {long/flat/expensive/straight/full/dull}
- b. longer, flatter, more expensive, straighter, fuller, duller
- (ii) a. ?very/quite/extremely {dead/triangular/invited/sold}
- b. ?more dead/triangular/invited/sold

정도 형용사는 (ia)처럼 very, quite, extremely와 같은 수식어가 가능하고, (ib)처럼 비교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정도 형용사는 (iia)처럼 very, quite, extremely와 같은 수식어의 수식이 이상하고, (iib)처럼 비교급도 이상하다. 즉 비정도 형용사는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삼각형이면 삼각이고, 초청했으면 초청된 것이고, 팔렸으면 팔린 것으로 양극의 끝점을 나타내므로 완결성을 나타낸다.

한편 정도 형용사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기준에 의거하여 정도의 척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도 형용사에도 full, empty, straight, dry 등과 같이 정도의 척도상의 끝점이 있는 유한척도(closed-scale) 형용사와 long, wide, short, cool 등과 같이 정도의 척도상의 끝점이 없는 무한척도(open-scale) 형용사가 있다.

- (iii) a. completely full/empty/straight/dry (closed-scale)
- b. ?? completely long/wide/short/cool (open-scale)

(iiia)의 full, empty, straight, dry 등과 같은 유한척도 형용사는 정도의 척도상 최대 끝점(maximal endpoint)을 completely와 같은 부사로 수식하여 나타낼 수 있지만, long, wide, short, cool 등과 같은 무한척도 형용사는 척도상 최대 끝점이 없으므로 completely와 같은 부사가 수식하면 이상하다. 한편 유한척도 형용사중에도 wet, dirty와 같은 형용사는 조금만 젖어도 젖었다고, 조금만 더러워도 더럽다고 할 수 있는 척도상 최소 끝점(miminal endpoint)을 나타내는 경우로 완결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무한척도 술어에 가까운 경우이다.

2) Boas (2000)의 말뚝치(curpus)조사에 다음과 같이 shoot의 경우 408개의 예로 제일 많이 발견되었다.

- (i) **Dead:** 429 occurrences: shoot (408), cut (11), kill (9), strike (8), stop (6), knock(3), flatten, kick, smite (각 1)

beautiful, safe와 같은 무한척도(open-scale) 정도형용사는 완결성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또 닭의 행위 (9b)의 경우도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결과술어도 clean, dry, smooth처럼 정도의 척도상 최대 끝점(maximal endpoint)을 나타내는 유한척도 정도형용사는 가능해도, 정도의 척도상 최소 끝점(miminal endpoint)을 나타내어 완결성에 있어서 무한척도 술어와 비슷한 damp, dirty, stained, wet은 불가능하다.³⁾

다음 세 번째 경우로 행위동사가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행위를 나타낼 경우 결과술어로 to NP와 같이 착점(goal)의 경로(path)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같이 쓰일 수 있다.

- (10) a. The rabbits had apparently been battered {*dead/to death}.
b. He and a confederate shot the miller {dead/to death}.

(10a)의 동사 batter는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결과술어로 양극단의 비정도 형용사 dead와는 같이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to death와 같이 정도의 경로상에서의 끝점(이 경우 death)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같이 쓰여 완결성을 나타낸다. 한편 순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10b)의 동사 shoot과는 양극단의 비정도 형용사 dead와 같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로에서의 끝점이 오래 끌지 않고 바로 이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to death와 같은 전치사구도 가능하다.⁴⁾

한편 자동사에 의한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의 경우는 결과술어의 주어가 본 동사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을 받는 피영향자가 아니므로 가짜 목적어인 재귀대명사나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를 통사적으로 대신 내세운 경우이다. 따라서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과 똑 같은 시간으로 상태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 즉 통제결과구문과 같이 동사의 행위와 상태변화가 서로 시간적으로 같이 일어

3) Boas (2000)의 말뭉치 조사에 따르면 척도상 최대 끝점의 유한척도술어 dry가 결과구문에 쓰인 경우는 77개, clean은 102의 예를 발견하였는데, 척도상 최소 끝점의 유한척도술어 wet과 dirty의 예는 make와 get의 사역구문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구문에서는 없었다.

- (i) a. dry가 결과구문에 나온 회수 총 77개,
그 외의 술어 suck (16), bleed (7), towel (6), wipe (6), rub (6), boil (5), pat (5), drink (5), milk(3), squeeze (3), hug (2), run (2), drain (2), blow, brush, cry, dab, drip, eat, scrub, weep (각 1).
b. wet가 결과구문에 나온 회수: 없음. (make-causatives에서만 12개)
(ii) a. Clean: 102 회: wipe (41), wash (11), sweep (10), scrub (9), rub (6), lick (6), scrape (5), rinse (3), suck (3), scour (2), pare (2), whip, wag, swab, polish, pick (각 1)
b. Dirty: 없음. (get-causative에서 33개, make-causatives에서 8개)

4) Boas (2000)의 말뭉치 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547개의 예가 발견되었다.

- (i) To death: 547개: stab (114), beat (74), batter (39), frighten (34), crush (25), scare (24), burn (18), torture (16), drink (15), starve (15), bludgeon (12), hack (12), shoot (11), kick (11), club (9), bore (8), knife (8), choke (8) ...

나는 동형성(homomorphic)을 보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동사의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영향을 받아 결과상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 (11) a. We laughed [the speaker off the stage].
- b. Peter quickly read [himself into an inferiority complex], after a few slow deliberate readings of his classmates' theses.

(11)과 같은 자동사에 의한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은 결과술어 off the stage와 into an inferiority complex의 주어가 동사 laugh와 read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통사적으로 필요하여 첨가된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 speaker이거나 가짜 목적어인 채귀대명사 himself이다. 따라서 상태변화는 동사의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동연하여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11a)에서 무대를 떠나는 연사는 우리가 웃는 행위와 똑 같은 시간상에 동시에 무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는 행위를 보거나 듣고 나서, 기분 나빠 무대를 떠난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11b)처럼 동료의 논문 몇 편을 천천히 자세히 읽고 난 후에 열등감에 빨리 빠지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시간 수식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즉 시간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다. 따라서 상태변화가 반드시 정도상의 끝점에 도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변화만 일어나도 상태변화가 일어났으므로 결과구문이 성립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완결성을 반드시 나타낼 필요도 없다.

- (12) a. John drank himself to death (*for a year/in a year).
- b. John is drinking himself to death. ≠ John has drunk himself to death.

- (13) a. We were yelling ourselves hoarse ⇒ We yelled ourselves hoarse.
- b. We were worrying ourselves sick. ⇒ We worried ourselves sick.
- c. We were laughing ourselves silly. ⇒ We laughed ourselves silly.

결과술어로 to death와 같이 경로상의 끝점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같이 쓰여 결과구문을 이룬 경우는 (12a)처럼 시간한도 부가어인 in-전치사구와만 같이 쓰이고, (12b)처럼 진행의 의미가 완료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으므로 완결성을 보인다. 그러나 결과 술어로 hoarse, sick, silly와 같이 무한척도 정도 형용사가 쓰인 (13)의 경우 진행형이 과거형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므로 완결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은 동사의 행위와 결과상태변화가 시간적으로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동사의 행위와 함께 반드시 끝점에 도달하여 완결성을 보일 필요는 없다. 단 상황에 따라 to death와 같은 전치사구와 같이 쓰여 상태변화의 끝점에 도달하여 완결성을 보이기도 하고, hoarse, sick,

silly와 같은 무한척도 정도 형용사와 같이 쓰여 상태변화의 조짐만 보이고 완결점이 없어도 가능하다.⁵⁾

지금까지 Wechsler (2001)를 중심으로 결과구문을 통사상의 특성에 따라 통제결과구문과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으로 나누어, 결과구문의 본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와 결과술어인 형용사구 및 전치사구에 대한 의미제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통사적 형태와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제결과구문과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4) a. John hammered the metal [PRO flat].
 b. Robin danced [PRO out of the room].
 c. The wise men followed the star [PRO out of Bethlehem].
- (15) a. John drank [himself to death].
 b. We laughed [the speaker off the stage].

(14a)는 전통적인 타동사형 결과구문으로 Wechsler (2001)에서 자세히 다룬 경우이고, (14b-c)는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5)는 Wechsler (2001)가 지적한 예외적 격표시 통제결과구문으로 다음 장에서 의미적인 사건구조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한편 통제결과구문의 경우 본동사의 행위에 직접 참여한 피영향자 논항이 행위가 진행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상에서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동형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10-12)에서 다룬 to death와 같은 경로의 전치사구의 경우 지속적인 행위동사와 쓰여 동형성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문맥이나 화용적인 특성에 따라 순간적인 행위동사와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의 경우 상태변화 술어의 의미상의 주어가 본동사의 행위에 직접 참여한 참여자가 아니므로 행위사건이 진행되는 시간과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 to death와 같은 착점의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같이 쓰여 완결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hoarse, tired 등과 같은 무한척도 정도형용사와 같이 쓰여 반드시 완결성을 보일 필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로의 전치사구의 경우 동형성 여부가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상의 형태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5) Boas (2000)의 말뭉치조사에서도 무한척도 정도형용사 hoarse는 통제결과구문의 예는 없고,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에 9개, sick이 12개의 예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3.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2)의 사건구조 분석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2)는 다음 (16)과 같은 자동사형 결과구문은 상태변화 술어가 홀로 나온 단순 서술구(bare XP) 결과구문으로 단순사건(simple event) 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17)과 같은 가짜 재귀대명사(fake reflexive) 결과구문은 복합사건(complex event) 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하여 이들을 사건구조로 구별하고자 했다.⁶⁾

- (16) a. The clothes steamed dry on the radiator.
- b. The kettle boiled dry.

- (17) a. The fans screamed themselves hoarse.
- b. The tourists walked themselves tired.

결로 드러난 통사적 현상에서도 (16)은 타동사에서 비대격화한 자동사형 결과구문이고, (17)은 자동사에 가짜 목적어인 재귀대명사를 첨가하여 타동사형 결과구문인 된 경우이다.

먼저 (16)과 같은 단순 서술구 결과구문은 각각의 주어 논항 the clothes와 the kettle이 본동사 steam, boil의 행위사건에 참여하는 논항이면서 동시에 그 상태변화의 하위사건 술어 dry에 참여하는 논항이다. 즉 옷들이 건조기 위에서 증발하면서 동시에 마르고, 또 주전자가 끓으면서 마르는 경우이다. 따라서 행위

6)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2)는 단순사건구조와 복합사건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i) a. Kim ran./John wiped (the table).
- b. Kim broke the window./John built the house.

(ia)의 동사 run은 이동양태동사(verbs of manner of motion)이고, wipe는 표면접촉동사(verbs of surface contact)로 하나의 하위사건으로만 구성된 단순사건구조를 지닌다. 반면 (ib)의 동사 break와 build는 상태변화동사(verbs of change of state)로 두 개의 하위사건이 사역적인 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를 지닌다.

- (ii) a. [x ACT <run/wipe> (y)]
- b. [[x ACT <break/build>] CAUSE [BECOME [y <STATE <broken/built>]]]

이때 (iia)는 뛰는 행위하위사건에 논항 x가 통사적으로 주어 NP인 John으로 나타나고, wipe의 경우 (테이블을) 닦는 행위사건에 논항 x가 통사적으로 주어 NP인 John으로 나타나, 행위에 참여한 뜻이는 테이블 y는 통사적으로 목적어 NP로 나타낼 수 있고 생략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동사의 근본적인 의미(root meaning)에서의 참여자가 반드시 사건구조의 논항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단 다음과 같이 목적어 논항을 인허해주는(licensing) 별도의 술어를 첨가할 경우 목적어가 반드시 나타나서 복합사건구조를 지니게 된다.

- (iii) a. John wiped the crumbs off the table.
- b. [[x ACT<wipe> y] CAUSE [BECOME[z NOT AT<PLACES>]]]

동사 wipe의 의미적인 참여자 테이블 y는 (ia)처럼 수의적이지만, 비하위법주화된 목적어 빵가루같은 부스러기 z는 테이블에서 떨어져나가는 하위사건의 주어논항으로 통사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즉 목적어로 나타나 (iiib)와 같은 복합사건구조를 지닌다.

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하나의 단순사건구조로 분석하고 있다.

이때 Van Valin (1990) 등은 자동사형 결과구문을 다음과 같이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기도 한다.

- (18) a. Susan ran to the house.
 b [run (Susan)] CAUSE [BECOME be-at (house, Susan)]
 (Van Valin 1990:224, (3d)).

Van Valin (1990)은 (18a)를 (18b)처럼 Susan이 뛰는 행위를 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Susan이 집에 있게 되는 결과상태가 된다는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였다. 이점에 대해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9)는 (18a)가 동작이 완료되어 완결성을 보인 달성구문(accomplishments)이기 때문에 사역구문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다음과 같이 동사의 어휘상 결과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lexically entailed result) 경우, 완결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역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19) a. The pond froze solid. ≙ The pond got solid by freezing.
 b. The bottle broke open. ≙ The bottle opened by breaking.

(19)의 자동사형 결과구문은 일러서 호수가 단단해 지거나, 깨서 병이 열리는 사역적인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얼면서 동시에 단단해지는 경우이고, 깨지면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이다. 즉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휘의미에서 상태변화 결과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으므로 사역적이라기 보다는 행위와 상태변화의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또 다음과 같이 어휘의미에서 결과가 함의되어 있지 않은(nonlexically entailed result) 경우는 이런 사역적인 구문으로 바꾸어 쓸 수는 있지만, 사역적이라 해서 모두 복합사건구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 (20) a. Casey waltzed out of the room. → Casey went out of the room by waltzing.
 b. The clothes steamed dry. → The clothes became dry by steaming.

(20)의 경우 (19)와 달리 사역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19)는 비사역적인 단순사건구조로 분석하고, (20)은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한다면 똑같이 술어 혼자만 나온 단순 서술구(bare XP) 자동사형 결과구문인데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 실제로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로 분석이 가능하다 해도, 다음과 같이 원인과 결과사건이 통사적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 (21) a. Terry ran into the room. (V expresses cause, XP result)
- b. Terry rustled into the room. (V expresses result, XP cause)

(21a)의 run과 같은 이동양태동사에 의한 결과구문을 구태여 원인과 결과로 해석한다면 뛰어서 방에 들어간 경우로 뛰는 것이 원인에 가깝고 방에 들어간 것이 결과에 가깝다. 그러나 (21b)의 rustle과 같은 소리방출동사(verbs of sound emission)에 의한 결과구문은 방에 들어가다 보니 바스락거린 경우로 바스락거린 것이 결과에 가깝고 방에 들어간 것은 원인에 가깝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사역관계라기보다는 뛰어가면서 방에 들어간 경우로, 또 바스락거리면서 방에 들어간 경우로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로 해석하여 단순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⁷⁾ 따라서 (19)와 같이 어휘의미에서 결과가 함의되어 있는 상태변화 결과구문이든, (20a)와 같이 어휘의미에서 결과가 함의되어 있지 않은 이동 결과구문이든 다음과 같이 다 Parsons (1990)식의 사건구조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단순사건구조로 분석하였다.

- (22) a. Robin danced out of the room. → Robin went out of the room dancing.
- b. (∃e) [Dancing(e) & Agent(e, Robin) & GO-OUT(e) & Source(e, the room)]

춤추는 사건, Robin이 행위자 역할을 하는 사건, 나가는 사건, 방이 나가는 출처인 사건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 e이다.

반면 (17)의 가짜 재귀대명사 결과구문은 동사 scream과 walk의 행위에 참여하는 논항으로 주어인 the fans와 the tourists가 있지만, 그 상태변화의 하위사건 술어 hoarse와 tired에 참여하는 논항은 각각 scream과 walk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주어 논항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짜 재귀대명사 themselves를 첨가하여 타동사형 결과구문이 된 경우이다. 또 시간적으로 소리치거나, 걷는 상위의 행위사건이 목이 쉬거나 피곤해지는 상태변화의 하위사건과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원인이 되는 사건과 그 결과 상태

7) 또 다음처럼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라고 해서 반드시 달성동사일 필요도 없다고 본다.

- (i) a. Robin flew a kite for an hour/#in an hour.
- b. Pat bounced the ball for ten minutes/#in ten minutes.

(i)의 동사 fly와 bounce는 어떤 행위를 해서 연이 날거나, 공이 튕 사역적인 복합사건 구조의 동사이다. 그러나 시간-지속 부가어 for an hour/for ten minutes와 만 같이 쓰이는 것처럼 동작이 완료되어 완결성을 보이는 달성구문은 아니다.

를 나타내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다.

- (23) Sam sang enthusiastically during the class play. He woke up hoarse the next day and said: 'Well, I guess I've sung myself hoarse'.

노래를 부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 목이 쉰 결과의 상태변화 사건은 그 다음 날 일어난 경우이다. 즉 시간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다. 따라서 가짜 재귀대명사 결과구문은 노래를 부른 원인의 행위사건과 그 결과 목이 쉰 하위의 상태변화사건이 결합된 복합 사건구조로 보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간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의 사건이 결합하여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를 이룬 것으로 분석하였다.

- (24) a. Robin danced herself stiff.
 b. $(\exists e_1)(\exists e_2)$ [Dancing(e_1) & Agent(e_1 , Robin) & BECOME-STIFF(e_2) & Theme(e_2 , Robin) & Cause (e_1 , e_2)]

춤추는 사건, Robin이 행위자 역할을 하는 사건은 원인이 되는 행위사건 e_1 이고, Robin이 피영향자나 대상이 되어서 뻣뻣하게 경직되는 사건은 결과가 되는 상태변화사건 e_2 이다. 즉 서로 사역적인 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를 이룬다. 이때 중요한 점은 행위자인 Robin이 춤추는 행위사건과 피영향자인 Robin이 뻣뻣하게 경직되는 사건은 우연히 시간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춤추고 나서 후에 뻣뻣하게 경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독립적이라 점이다. 이처럼 단순사건구조와 복합사건구조를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는 결과구문이 완결성을 보이는 달성구문인가라는 점보다는 시간적으로 의존적이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인가, 시간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사역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인가이다.

한편 Rappaport Hovav and Levin (1999)에서는 가짜 재귀대명사 결과구문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비하위범주화 목적어 결과구문도 복합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 (25) a. The dog barked the neighbor awake.
 b. The phone rang me out of my slumber.
 c. Sleep your wrinkles away!
 d. They drank the teapot dry.
 e. The cattle ate the field bare.

가짜 재귀대명사 결과구문과 마찬가지로 동사 bark, ring, sleep, drink, eat의 행위에 참여하는 각각의 주어 논항이 있지만, 그 상태변화의 하위사건 술어 awake, out of my slumber, away, dry, bare에 참여하는 논항은 본 동사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논항이 아니다. 즉 별도의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를 첨가하여 놓은 타동사형 결과구문이다. 따라서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25a)에서 개가 짓는 행위와 이웃이 잠에서 깨는 상태변화의 하위사건이 시간적으로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즉 원인과 결과의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독립적인 복합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⁸⁾

한편 하위범주화된 목적어를 동반한 타동사형 결과구문의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 (26) a. We all pulled the crate out of the water.
- b. They yanked the nails out of the board.
- c. The coast guard tugged the raft back to shore.

- (27) a. Clara rocked the baby to sleep.
- b. The police shot the robber to death.
- c. The critics panned the play right out of town.

(26)의 동사 pull, yank, tug 등은 힘을 쓰는 동사(verbs of exerting force)로

8) 이때 (25)는 비하위범주화 목적어가 첨가된 결과구문으로 통사적으로 도출(syntactic derivation)된 달성구문이라면, 다음 (i)은 같이 비하위범주화 목적어가 첨가된 결과구문이지만 어휘적으로 도출(lexical derivation)된 달성구문이다.

- (i) a. Tracy washed the soap out of the shirt.
- b. Pat rubbed the oil into the wood.
- c. Sandy wiped the crumbs off the table.
- d. The weaver rinsed the dye out of the material.
- e. Terry swept the leaves off the sidewalk.

이 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목적어가 의미적으로 동사의 정상적인 목적이 논항이 아니다. 따라서 목적어 논항을 인허해주는(licensing) 별도의 술어를 첨가하여 타동사형 결과구문이 된 경우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통사적으로 도출된 (25)의 결과술어는 상태변화의 형용사구(AP)와 장소이동의 전치사구(PP)가 다 쓰이는 데 비해, 어휘적으로 도출된 (i)은 장소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제한되어 쓰인다. 더구나 다음처럼 장소이동의 전치사구속의 명사구는 다음 (ii)에서 보듯 동사의 의미적인 목적어 논항이다. 그러나 통사적으로 도출된 (25)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ii) a. Tracy washed the shirt.
- b. Pat rubbed the wood.

둘째 통사적으로 도출된 (25)는 (ii)과 같이 타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자동사의 의미로 쓰여야 한다. 타동사로 쓰일 수 있는 (25d-e)의 drink, eat의 경우도 비특정적 목적어(unspecified object)가 생략되어 자동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세째 어휘적으로 도출된 (i)의 rinse와 rub은 오히려 비특정적 목적어(unspecified object)가 생략되어 자동사(*Pat rubbed.)로 쓰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음처럼 비하위범주화 목적어라도 중간동사구문의 주어로 쓰일 수 있다.

- (iii) a. This dye rinses out easily.
- b. This kind of oil rubs into the wood easily.

단순히 타동사로만 쓰일 때는 완결성이 없으나, (27)과 같이 결과구문으로 쓰일 때는 그 힘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쳐 목적어가 장소 이동이 되는 완결성을 이룰 때까지 힘이 작용한다. 즉 시간적으로 의존적이어서 목적어에게 힘을 쓰는 행위와 목적어가 이동되는 상태변화가 동연하는 관계를 이룬다. 반면에 (27)의 동사 *rock, shot, pan* 등은 이러한 시간적인 의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다음 예문에서 엿 볼 수 있다.

- (28) a. The coast guard slowly tugged the raft back to shore.
 b. Clara quickly rocked the baby to sleep.

(28a)의 부사 *slowly*는 뗏목을 잡아당기는 행위와 뗏목이 해안가로 이동되는 사건 둘을 다 수식하여, 천천히 뗏목을 잡아당긴 것과 동시에 뗏목이 천천히 해안가로 이동이 되는 동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28b)의 부사 *quickly*는 어린 아기가 빨리 잠든 것은 수식하지만, 어린 아기를 빨리 흔들었다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 즉 어린 아기를 흔드는 행위사건과 어린 아기가 잠든 상태변화의 사건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고 시간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7)은 시간적으로 독립적이라 사역적인 복합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26)은 하위범주화된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형 결과구문이라고 해도 시간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역적인 복합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2)는 결과구문을 통사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상위의 행위사건과 하위의 결과상태사건이 의미적인 면에서 시간적으로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에 따라 단순사건구조와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여 그 의미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사건과 결과상태사건 두개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의존적이라고 하여도 엄연히 두개의 사건이 존재하므로 이를 단순사건으로 통합한다고 하여도 완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되, 두 개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동연하는 관계로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4. 결과구문의 통사 의미 특성에 따른 사건구조 분석

지금까지 Wechsler (2001)를 중심으로 결과구문을 통사상의 특성에 따라 통제결과구문과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으로 나누어, 결과구문의 본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와 결과술어인 형용사구 및 전치사구에 대한 의미제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제결과구문의 경우 본동사의 행위에 직접 참여한 피영향자 논항이 행위가 진행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상에서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동형성을 보였다. 단 *to death*와 같은 경로의 전치사구의 경우 지속적인 행위동사와 쓰여 동형성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문맥이나 화용적인 특성에 따라 순간적인 행위동사와

도 쓰일 수 있다. 한편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의 경우 상태변화 술어의 의미상의 주어가 본동사의 행위에 직접 참여한 참여자가 아니므로 행위사건이 진행되는 시간과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 또 to death와 같은 착점의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같이 쓰여 완결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hoarse, tired 등과 같은 무한척도 정도형용사와 같이 쓰여 반드시 완결성을 보일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Wechsler (2001)의 결과구문에 대한 통사 분석과 의미특성에 따라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2)에서 논의한 다음의 결과구문의 예를 갖고 사건구조 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결과구문의 사건구조를 재분석하고자 한다.

- (29) a. The pond froze solid.
- b. Robin danced out of the room.
- c. The wise men followed the star out of Bethlehem.
- d. We pulled the crate out of the water.

- (30) a. The jogger ran the pavement thin.
- b. We yelled ourselves hoarse.
- c. They drank the pub dry.
- d. The cow ate themselves sick.
- e. The critics panned the play right out of town.

(29a)는 상태변화의 타동사에서 비대격화 되어 자동사로 쓰인 상태변화의 자동사형 결과구문이고, (29b)는 원래 자동사인 비능격 자동사로 장소이동의 자동사형 결과구문이다. (29c)는 하위범주화된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형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이나, 장소 이동하는 주체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주어 중심의(subject-oriented) 타동사형 결과구문이고, (29d)는 하위범주화된 목적어를 지닌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 장소 이동하는 주체가 목적어인 목적어 중심의(object-oriented) 원형적인 타동사형 결과구문이다. 이들은 모두 시간적으로 의존적이어서 단순사건구조를 이루는 경우이다. 한편 (30a-b)는 자동사에 근거를 둔 (intransitive-based) 타동사형 결과구문으로 (30a)는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가 첨가된 경우이고, (30b)는 가짜 재귀대명사 목적어가 첨가된 경우이다. (30c-d)는 타동사에 근거를 둔(transitive-based) 타동사형 결과구문이나, 원래의 의미적 목적어는 생략되고, 대신 (30c)는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가 첨가된 경우이고, (30d)는 가짜 재귀대명사 목적어가 첨가된 경우이다. (30e)는 하위범주화된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에 근거를 둔 원형적인 타동사형 결과구문이다. 이들은 모두 시간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를 지니는 경우이다.

먼저 다음과 같은 단순 서술구(bare XP) 결과구문에 대해서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2)의 사건구조 분석에서는 상태변화와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에 쓰인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 (31) a. The clothes steamed dry on the radiator.
 b. Robin steamed the clothes dry on the radiator.
- (32) a. Robin danced out of the room.
 b. *Robin danced himself out of the room.
- (33) a. Robin danced in the room.
 b. Robin danced *(herself) stiff.

동사 steam은 상태변화 동사로 (31b)의 타동사형 결과구문에서 (31a)의 자동사형 결과구문으로 전성되어 쓰일 수 있는 비대격동사(unaccusatives)이다. 반면 dance는 이동양태동사로 (32a)의 자동사형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만 쓰이지, (32b)처럼 가짜 재귀대명사를 동반한 타동사형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또 (33a)처럼 결과구문이 아닌 완전자동사구문으로도 쓰일 수 있는 비능격자동사(ungergatives)이다. 단 상태변화의 결과구문으로 쓰일 경우는 (33b)처럼 가짜 재귀대명사를 동반한 타동사형 결과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두 구문을 통사적인 표면구조상 자동사형 단순 서술구(bare XP) 결과구문이라 하여 같이 단순사건구조로 분석한다고 해도 이런 어휘적, 의미적, 통사적 차이를 어디선가 설명해야 한다. 또 단순사건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시간적으로 의존적이나 독립적이나 하는 점인데, 그렇다면 (31b)의 타동사형 상태변화 결과구문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하위사건이 시간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단순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때 Wechsler (2001)에 따르면 (31b)와 같은 타동사형 상태변화의 결과구문은 통제관계에 있으므로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동형성을 보인다. 즉 시간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를 지니는 경우이다. 단 to death처럼 장소이동의 착점의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를 동반할 경우 문맥이나 화용적 특성에 따라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상태변화의 결과구문과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일단 Wechsler (2001)에 따라 통사적으로는 통제결과구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34) a. Robin steamed the clothes [PRO dry on the radiator].
 b. (∃e1)(∃e2) [Steaming(e1) & Agent(e1, Robin) & Patient(e1, the clothes) & BECOME-DRY(e2) & Patient(e2, the clothes) & Cause(e1, e2) & Coextensive(e1, e2)]
- (35) a. Robin danced [PRO out of the room].
 b. (∃e1)(∃e2) [Dancing(e1) & Agent(e1, Robin) & GO-OUT(e2) &

heme(e2, Robin) & Source(e2, the room) & Coextensive(e1, e2)].

(34a)의 타동사형 상태변화 결과구문의 의미는 Robin이 옷에 증기를 쐬어 그 결과 옷이 마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34b)와 같이 행위자(agent) Robin이 피영향자(patient) 옷에 증기를 쐬는 행위사건 e1과 그 결과 피영향자 옷이 마르는 상태변화의 결과사건 e2가 사역관계에 있으면서 시간적으로 동연하는 복합사건 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한다. 즉 통사적으로 통제관계에 있는 상태변화의 결과구문으로 시간적으로 동연하고,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영향을 받아 상태변화가 일어나므로 사역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31a)의 비대격자동사에 의한 자동사형 상태변화 결과구문은 다음과 같은 결과의 상태변화 하위사건 e2 (steaming-result)만으로 구성된 단순사건구조를 지닌 경우로 보고자 한다.

(34) c. The clothes steamed [PRO dry on the radiator].

d. (∃e2)[Steaming(e2) & BECOME-DRY(e2) & Patient(e2, the clothes)]

(34c)의 자동사형 상태변화 결과구문의 의미는 옷이 증기에 쐬어 마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34d)와 같이 피영향자 옷이 증기에 쐬어 마르는 상태변화의 결과사건 e2로만 구성된 단순사건구조로 분석한다.9)

한편 (35a)의 자동사형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의 의미는 Robin이 춤추면서 방밖으로 나가는 의미이다. 그러나 (34c)와 달리 주어 Robin이 춤추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 피영향자가 아니라 (33a)의 행위의 자동사구문에서처럼 행위자이다. 또 전치사구 out of room은 in the room과 같이 단순히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아니라 장소이동의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이다. 또 통제관계에 있는 그

9) 이는 김정학(2000)에서 다음처럼 분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i) a. John froze the water; [PRO_i solid].

b. The water_i froze t_i [PRO_i solid].

(ii) a. [do' (John, [freeze'(John, water)])] CAUSE [BECOME solid'(water)]

b. [freeze'(water)] & [BECOME solid'(water)]

Pustejovsky (1995:188)도 영어동사 sink에 해당되는 이태리어 동사 affondare의 분석에 있어 비대격화된 자동사의 사건구조를 sink_result (e2, y)로 분석하고 있다.

(iii) a. I nemici baffano affondato la nave. 'The enemy sank the boat.'

b. La nave ?affondata. 'The boat sank.'

Pustejovsky (1995)는 동사 sink의 의미구조에서 사건구조(e1:process, e2:state)의 중점값(HEAD-value)이 미명세되어 있는데 중점값은 문맥에 따라 선행사건 e1이나, 후행사건 e2으로 정해져 생성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iiia)의 타동사구문은 제1하위 사건 e1이 중점(e1*)인 경우로 특질 구조속의 작인역(AGENTIVE) =sink_act(e1, x, y)에 간여하는 논항 x와 y가 표면격 (SUBJ와 OBJ)을 받으면서 실현되어 타동사구문이 되고, 중점이 되지 않는 형상역(FORMAL)=sink_result(e2, y)의 y는 그림자화(shadowed) 하여 통사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iiib)와 같이 비대격화된 자동사구문은 제2하위 사건 e2가 중점(e2*)인 경우로 (e2, y)의 y만이 통사적으로 주어로 실현되며, 중점에서 제외된 (e1, x, y)의 두 논항은 통사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어 자동사 구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미상의 주어 PRO는 행위자가 아니라 장소이동의 대상(theme)이다. 즉 (34c)의 주어 옷은 증기에 썬어 마르는 피영향자의 의미격만 지니지만, (35a)의 주어 Robin은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대상의 의미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35b)처럼 행위자 Robin이 춤추는 행위사건 e1과 행위자 Robin이 동시에 장소이동의 대상이 되어 시점(source)인 방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의 장소이동사건 e2로 구성된 복합사건으로 분석한다. 즉 자동사형 통제결과구문으로 행위자 Robin이 동시에 장소이동의 대상이 되는 관계이므로 의미적으로 두 사건 e1, e2가 사역관계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의존하여 동시에 일어나는(coextensive) 사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때 같은 Robin이 행위사건 e1에서는 행위자로, 장소이동의 결과사건 e2에는 대상으로 의미역이 두 번 표시될 수 있는 것은 Wechsler (2001)에 따라 통사적으로 (35a)처럼 통제결과구문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PRO에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역이 인허(licensing)될 수 있다. 또 결과구문이 아니라 (33a)와 같이 완전자동사구문으로 쓰인 경우, (35b)에서의 행위사건 e1만으로 분석하여 구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의미학할 관계에서도 상태변화의 결과구문에서는 피영향자(patient)로,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에서는 대상(theme)으로 분석하여 상태변화 결과구문과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을 의미적인 사건구조로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장소이동의 결과술어의 주어가 상위 행위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경우도 사건구조로 분석하여 의미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36) a. The wise men followed the star [PRO out of Bethlehem].
 b. (∃e1)(∃e2) [Following (e1) & Agent (e1, the wise men) & Location (e1, the star) & GO-OUT (e2) & Theme (e2, the wise men) & Source (e2, Bethlehem) & Coextensive (e1, e2)]

(36a)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장소이동의 결과 술어 *out of Bethlehem*의 의미상의 주어가 상위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주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구문이다. 이때 상위동사의 목적어 *star*는 영향을 받는 피영향자가 아니라 위치를 나타내는 처소(location)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장소이동 결과술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위동사의 행위자 주어 *the wise men*이 의미적으로 동시에 장소 이동의 대상이 되는 통제결과구문이다. 이 경우도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9)는 시간적으로 의존적이어서 단순사건구조로 분석하였으나, (36b)처럼 현자들이 별을 따라가는 행위사건 e1과, 현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벗어나는 장소이동사건 e2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단 두 사건이 사역관계라기보다는 행위자 *wise men*이 동시에 장소이동의 대상이 되는 결과구문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의존하여 동연하는 관계가 된다.

한편 *wriggle*과 같은 이동양태동사의 경우 다음 (37a)처럼 예외적 격표시 타동사형 결과구문에는 쓰일 수 있지만, (37b)처럼 자동사형 상태변화의 결과구문

으로는 쓰일 수 없다. 그런데, 왜 비슷한 형태의 다음 (38)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결과구문으로 다 쓰일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37) a. I tried to wriggle myself comfortable in the passenger seat.
(Linda Barnes. 1995. *Hardware*. New York: Delacorte. P.35)
- b. *I tried to wriggle comfortable in the passenger seat.

- (38) a. Mr. Duggan became alarmed about being caught in the door of a lift which was about to begin its descent and wriggled himself free.
("Historian Settles Action on Lift Incident", *The Irish Times*, December 2, 1994, p.4)
- b. One woman gets up to leave, but Red-Eyes grabs her roughly by the arm and pulls her into his lap. She wriggles free ...
(F. O'Reilly, "Killing Time in the shadow of War" *The Ottawa Citizen*, November 30, 1997, p.10)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9:12)는 동사 wriggle은 내적인 상태변화의 의미는 없으므로 가짜 재귀대명사를 첨가하여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의 (37a)와 같은 타동사형 상태변화의 결과구문으로는 쓰일 수 있지만, (37b)와 같은 자동사형 상태변화의 결과구문으로는 쓰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휘의 의미상 자연스럽게 남의 손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사역적 복합사건구조 (38a)와 같은 가짜 재귀대명사를 동반한 타동사형 결과구문으로 쓰일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의존하여 동연하는 단순사건구조의 (38b)와 같은 자동사형 결과구문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를 의미적으로 사건구조로 분석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때 같은 동사 wriggle이 쓰였어도 의미적으로 (37)은 상태변화의 결과술어 comfortable과 같이 쓰인 상태변화의 결과구문이다. 그러나 (38)은 결과술어로 free가 쓰였지만 의미적으로는 남의 손에서 벗어나는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이다.¹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건구조

10) Verspoor (1997:108-152)는 이동양태동사의 결과구문에 대해 결과보문의 형용사가 순수 상태변화가 아니라 장소와 관련된 형용사라는 제약이 있다고 본다.

- (i) a. They slowly swam apart.
b. She danced/swam free of her captors. [Verspoor p108 (4.11)]

- (ii) a. *She danced/swam sore.
b. She danced her feet sore. [Verspoor p109 (4.13-14)]

(i)과 같이 수영을 해서 서로 거리 상 떨어져 헤어진 경우나, 체포자로부터 자유로워진 경우만 가능하지, (ii)처럼 순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형용사와는 쓰일 수 없다. 단 (ii)처럼 유사목적어 her feet를 집어넣어 타동사적 결과구문의 형태로 쓰일 때는 가능하다. 다음의 경우도 이와 같은 유형의 결과구문이다.

로 나타내어 의미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 (39) a. $(\exists e_1)(\exists e_2)$ [Wriggling (e_1) & Agent (e_1, I) & BECOME-FREE (e_2) & Theme (e_2, I) & Coextensive (e_1, e_2)]
 b. $*(\exists e_1)(\exists e_2)$ [Wriggling (e_1) & Agent (e_1, I) & BECOME-COMFORTABLE (e_2) & Patient (e_2, I) & Coextensive (e_1, e_2)]

이동양태동사 wriggle은 ‘꿈틀거리며 나아가다’란 의미가 있어 (38b)처럼 쓰여 꿈틀거리는 행위사건의 행위자가 동시에 붉은 눈의 불한당에서 벗어나는 이동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39a)와 같은 장소이동의 사건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동시에 상태변화의 피영향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39b)와 같은 상태변화의 사건구조로 나타낼 수는 없다. 즉 (37b)처럼 쓰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차이를 의미적으로 상태변화와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의 사건구조로 구별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음 가짜 재귀대명사나 비하위범주화 목적어를 동반한 타동사형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도 상태변화와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 구별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사건이 사역관계에 있는 복합사건 구조로 분석하여 잘 나타낼 수 있다.

- (40) a. Robin danced [herself stiff].
 b. The dog barked [the neighbor awake].
 c. Robin wiped [the crumbs off the table].
- (41) a. $(\exists e_1)(\exists e_2)$ [Dancing (e_1) & Agent (e_1, Robin) & BECOME-STIFF (e_2) & Patient (e_2, Robin) & Cause (e_1, e_2)]
 b. $(\exists e_1)(\exists e_2)$ [Barking (e_1) & Agent ($e_1, \text{the dog}$) & BECOME-AWAKE (e_2) & Patient ($e_2, \text{the neighbor}$) & Cause (e_1, e_2)]
 c. $(\exists e_1)(\exists e_2)$ [Wiping (e_1) & Agent (e_1, Robin) & Patient ($e_1, \text{the table}$) & BECOME-NOT-BE-AT (e_2) & Theme (e_2, crumbs) & Source ($e_2, \text{the table}$) & Cause (e_1, e_2) & Coextensive (e_1, e_2)]

(40a)는 가짜 재귀대명사 결과구문으로 Robin이 춤을 추다보니 그 결과 목이 뻣뻣하게 경직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41a)처럼 행위자 Robin이 춤을 추는 행위사건 e_1 과 그 결과 가짜 재귀대명사 목적어로 설정된 Robin이 피영향자가 되어 목이 뻣뻣하게 경직되는 상태변화사건 e_2 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독립적이고, 가짜 재

-
- (iii) a. The cat jumped free.
 b. The dog broke loose.
 c. The button worked loose.

귀대명사 목적어이긴 하지만 목적어가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타동사형 결과구문 이므로 의미적으로 사역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를 지닌다. (40b)는 통사적으로 도출된다고 본 상태변화의 비하위범주화 목적어 결과구문으로 개가 짚어서 그 결과 이웃사람이 잠에서 깨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41b)처럼 행위자 개가 짚는 행위사건 e1과 그 결과 비하위범주화 목적어로 설정된 이웃사람이 피영향자 되어 잠에서 깨는 상태변화사건 e2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독립적이고, 비하위범주화 목적어이긴 하지만 목적어가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타동사형 결과구문이므로 의미적으로 사역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를 지닌다. 한편 (40c)는 어휘적으로 도출된다고 본 장소이동의 비하위범주화 목적어 결과구문으로 Robin이 테이블을 닦아 테이블에 있던 부스러기를 치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41c)처럼 행위자 Robin이 피영향자 테이블을 닦는 행위사건 e1과 그 결과 비하위범주화 목적어로 설정된 부스러기가 대상이 되어 테이블에서 없어지는 장소이동의 결과사건 e2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단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이기 는 하지만, 비하위범주화 목적어로 설정된 부스러기가 의미적 목적어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물건으로 이동의 대상이 되므로 어휘적으로 연관이 있는 결과구문이다. 또 의미적 목적어인 테이블이 경로의 시점이 되어 전치사구로 표현된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이므로 시간적으로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어휘의 의미에 따라 시간적으로 의존하여 동연하는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¹¹⁾ (40)의 구문은 모두 통사적으로 목적어가 상태변화나 장소 이동하는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이므로 두 사건이 사역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하여 잘 설명할 수 있다. 단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은 착점이나 시점의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를 사용함으로 문맥이나 어휘의 의미에 따라 시간적인 의존관계가 약간 다를 수 있다.

한편 하위범주화된 목적어를 동반한 원형적인 타동사형 통제결과구문의 경우를 보자.

- (42) a. Robin wiped the table [PRO clean].
- b. John pulled the crate [PRO out of the water].
- c. The critics panned the play [PRO right out of town].

- (43) a. (∃e1)(∃e2) [wiping (e1) & Agent (e1, Robin) & Patient (e1, the table) & BECOME-CLEAN (e2) & Patient (e2, the table) & Cause

11) 따라서 어휘적으로 도출된다고 본 (40c)에서 표면접속동사 wipe의 의미적인 피영향자 테이블이 장소이동의 결과사건에서는 변화의 시점이 되고, 그 위에 있던 부스러기가 이동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사건구조로 잘 나타내고 있다. 즉 어휘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통제관계의 상태변화 결과구문 (42a)에서는 상위 행위사건의 피영향자가 상태변화의 결과사건에서도 피영향자가 된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도출된다고 본 (40b)와 사건구조상의 차이로 잘 나타낼 수 있다.

- (e1, e2) & Coextensive (e1, e2)]
- b. ($\exists e1$)($\exists e2$) [pulling (e1) & Agent (e1, John) & Patient (e1, the crate) & GO-OUT (e2) & Theme (e2, the table) & Source (e2, the water) & Cause (e1, e2) & Coextensive (e1, e2)]
- c. ($\exists e1$)($\exists e2$) [panning (e1) & Agent (e1, the critics) & Patient (e1, the play) & GO-OUT (e2) & Theme (e2, the play) & Source (e2, town) & Cause (e1, e2)]

(42a)는 상태변화의 결과구문으로 Robin이 테이블을 닦아 테이블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43a)처럼 행위자 Robin이 피영향자 테이블을 닦는 행위사건 e1과 그 결과 피영향자 테이블이 깨끗해지는 상태변화사건 e2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통제관계의 타동사형 상태변화 결과구문으로 시간적으로 의존적이어서 동연하는 사역관계의 복합사건구조를 지닌다. (42b)는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 John이 상자를 잡아당겨 물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43b)처럼 행위자 John이 피영향자 상자를 잡아당기는 행위사건 e1과 그 결과 상자는 이동하는 대상이 되어 물 밖에 나오게 되는 장소이동사건 e2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타동사형 장소이동 결과구문으로 시간적으로 의존적이어서 동연하는 사역관계의 복합사건구조를 지닌다. 한편 (42c)는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 비평가가 연극을 혹평하여 연극이 마을에서 공연을 못하고 쫓겨 나오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43c)처럼 행위자 비평가가 피영향자 연극을 혹평하는 행위사건 e1과 그 결과 연극이 이동하는 대상이 되어 마을에서 공연을 못하고 쫓겨 나오게 되는 장소이동사건 e2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목적어가 장소이동의 대상이 되는 타동사형 통제결과구문이므로 사역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이나, 시점의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를 동반하는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이므로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서 동연한다고 볼 수 없고 시간적 간격이 가능하다. 즉 단지 시간적 의존성에 따라 의존적이라고 본 (42b)는 단순사건구조, 독립적이라고 본 (42c)는 복합사건구조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장소이동의 통제결과구문은 일단 복합사건구조로 보고 경로의 전치사구를 동반하는 경우이므로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전치사구의 특성에 따라 시간적인 의존성이 다름을 사건구조로 나타내어 구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먼저 Wechsler (2001)를 중심으로 결과구문의 완결성과 결과구문의 어휘적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즉 타동사형 통제결과구문의 경우 본동사의 행위에 직접 참여한 피영향자 논항이 행위가 진행되는 시간과 똑같이 시간상에서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동형성을 보이므로 시간적으로 두 사건이 의존적이고, 반드시 완결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단 경로의 전치사구로 표현 될 경우 동사의 의미와 전치사구의 의미 및 화용적 특성에 따라 시간적인 의존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의 경우 상태변화 술어의 의미상의 주어가 본동사의 행위에 직접 참여한 참여자가 아니므로 행위사건이 진행되는 시간과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적으로 독립적이고 완결성도 반드시 나타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경로의 전치사구로 표현될 경우 동사의 의미와 전치사구의 의미에 따라 완결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2)를 중심으로 개개의 결과구문의 의미특성을 어떻게 사건구조로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 상태변화와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 구별하여 새로운 사건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의미적으로 상태변화와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으로 구별하여 여러 경우를 자세히 사건구조로 분석하여 설명함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점이 있음을 보였다. 첫째 상태변화 결과구문의 경우 타동사형 결과구문은 원인이 되는 행위사건 e1과 결과의 상태사건 e2가 통제관계에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의존하여 동연하는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여 잘 나타낼 수 있었다. 또 비대격화된 자동사형 결과구문은 결과의 상태사건 e2만으로 구성된 단순사건구조로 분석하여 잘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관계를 사건구조로 나타내어 의미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둘째 장소이동 결과구문의 경우 행위사건 e1과 장소이동 결과사건 e2가 통제관계에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의존하여 동연하는 복합사건구조로 분석된다. 단 주어인 행위자가 동시에 장소이동의 대상이 되는 통제관계이므로 사역관계가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임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follow와 같은 타동사형 장소이동의 결과구문의 경우도 주어인 행위자가 동시에 장소이동의 대상이 되는 통제관계이므로 시간적으로 의존하여 동연하나, 사역관계가 아닌 복합사건구조로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셋째 wriggle과 같은 이동양태동사의 경우 상태변화 결과구문으로 쓰일 경우 재귀대명사를 동반한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으로만 쓰임을 의미적으로 주어인 행위자가 동시에 상태변화의 피영향자가 되는 통제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사건구조로 분석하여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또 free와 같은 형용사구를 동반할 경우 장소이동의 자동사형 통제결과구문으로 쓰일 수 있음을 주어인 행위자가 동시에 장소이동의 대상이 되는 통제관계가 가능함으로 사건구조로 분석하여 의미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넷째 자동사에 근거를 둔 상태변화 결과구문의 경우 의미적으로 주어인 행위자가 동시에 상태변화의 피영향자가 되는 통제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가짜 재귀대명사나 비하위범주화 목적어를 동반한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으로 쓰일 수밖에 없으며, 또 시간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의 사건이 사역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로 분석될 수밖에 없음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또 장소이동 결과구문의 경우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이기 는 하나, 경로의 전치사구를 동반하는 경우로 의미적으로 목적어인 처소위에 있는 물건이 장소이동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시 시간적으로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어휘적 의미에 따라 의미적 통제관계가 성립하여 시간적으로 의존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다섯째 타동사에 근거를 둔 통제결과구문의 경우에 상태변화의 경우 반드시 시간적으로 의존하는 두 개의 사건이 사역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로 분석되나, 장소이동의 경우 경로의 전치사구를 동반하는 경우이므로 어휘의 의미에 따라 시간적으로 의존할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는 경우로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김경학 (2000). 결과구문의 분석과 의미해석에 대해. 언어, 25(1), 31-50.
- Boas, Hans C. (2000).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German*. Linguistics Departmen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hD Dissertation.
- Carrier, Jill and Randall, Janet. (1992). The Argument Structure and Syntactic Structure of Resultatives. *Linguistic Inquiry* 23(2), 173-234.
- Dowty, D. R.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 Foley, W. A. and R. Van Valin. (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berg, Adel E. (1995). *Construction: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imshaw, Jane.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Grimshaw, J. and S. Vikner. (1993). Obligatory Adjuncts and the Structure of Events. In E. Reuland and W. Abraham, eds., *Knowledge and Language II: Lexical and Conceptual Structure*, Kluwer, Dordrecht, 143-155.
- Hay, J, C. Kennedy, and B. Levin. (1999). Scalar Structure Underlies Telicity in 'Degree Achievements'. *Proceedings of SALT 9*, Cornell Linguistics Circle Publications,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127-144.
- Jackendoff, R. S. (1990). *Semantic Structures*. MIT Press, Cambridge, MA.
- Krifka, Manfred. (1998). The Origins of Telicity. *Events and Grammar*, ed. by Susan Rothstein, 197-236. Dordrecht: Kluwer.
- Levin, B. (1999). Objecthood: An Event Structure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35th Annu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Part 1: Papers from the Main Session*, 223-247.
- Levin, B. (2000). Aspect, Lexical Semantic Representation, and Argument Expression.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413-429.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1999). Two Structures for Compositionally Derived Events, *Proceedings of SALT 9*, 199-223.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2002). The Semantic Determinants of Argument Expression: A View from the English resultative Construction. *The Syntax of Time*, MIT Press, Cambridge, MA.
- Parsons, Terence.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Cambridge, MA: MIT Press.
- Pustejovsky, J.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47-81.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MIT Press, Cambridge.
- Rappaport Hovav, M. and B. Levin. (1996). Two Types of Derived Accomplishments. In M. Butt and T. H. King, eds., *Proceedings of the First LFG Conference*, 375-388.
- Rappaport Hovav, M. and B. Levin. (2001). An Event Structure Account of English Resultatives. *Language* 77, 766-797.
- Simpson, Jane. (1983). Resultatives. *Papers in Lexical-Functional Grammar*, ed. by Lori Levin, Malka Rappaport and Annie Zaenen, 143-58.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Van, Valin, Robert D., Jr. (1990). Semantic parameters of split intransitivity. *Language* 66, 221-260.
- Verspoor, C. M. (1997). *Contextually-Dependent Lexical Semantics*. Ph. D. thesis, The university of Edinburgh.
- Wechsler, S. (2001). An Analysis of English resultatives Under the Event-Argument Homomorphism Model of Telicity. *Proceedings of the 3rd Workshop on Text Structure*, University of Texas.

김 경 학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khkim@suwon.ac.kr

접수일자 : 2005. 5. 18

수정본 접수 : 2005. 8. 12

게재결정 : 2005. 9. 8